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에게 전하노라"(누가복음 2장10절)

발행인 / 이종운,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62-3498 •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 교사 및 찬양대원 임명

26개 교회학교에 1,108명

90년도에 봉사할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임명이 지난 10일 주일 예배시 있었다.

1990년도부터 교회학교는 제1 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회, 그리고 제3교육위원회로 구분되고 26개

교회학교로 늘어난다.

이번 임명받은 교사는 남자 405명, 여자 703명 계 1,108명이다.

한편 교회학교 각부 장소는 다음 도표와 같다.

※교사명단은 3면에 게재했으며, 찬양대 명단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1990년도 교회학교 각부 장소사용 계획

구분	예 배 실	분 반 공 부 실	찬양연습실	사 용 기 간	교 사 실
1. 영 아 부	아 멘 홀	아멘홀	아 멘 홀	09:00-12:00	아 멘 홀
2. 유 치 부	소205호	소205, 208, 209호	소205호	09:00-12:00	소205호
3. 초 등 1부	소212호	소201호(304)	소305호	90:00-10:30	소304
4. 초 등 2부	소314호	소301,302,305,308(311)	소308호	90:00-10:30	소311호
5. 초 등 3부	소307호	소401,402,408,412(310)	소401호	90:00-10:30	소310호
6. 초 등 4부	소414호	소514(410)	소408호	90:00-10:30	소410
7. 초 등 5부	소407호	소501,502,503,504,508(303)	소509호	90:00-10:00	소303호
8. 초 등 6부	소507호	소511, 512, 602(411)	소507호	90:00-10:30	소403호
9. 중 등 부	갈 린 리 홀	갈린리홀, 본당B103, B114-1 B114-2, B114-3, B114-4	소402호	10:30-12:20	본 당
10. 고 등 부	소507호	소414, 501, 504, 508 509, 511, 512, 602	면 려 회 실 소404호 소507호 면 려 회 실 소508호	10:30-12:20	제1 다 락 방 소503호
11. 대 학 부				토요일 16:00-20:00	
12. 청 년 1부	소602호	집회 및 분반공부		13:00-	소602호
13. 청 년 2부	소514호	집회 및 분반공부		13:00-	소405호
14. 장 년 1부	소407호	집회 및 분반공부	어린이공부방 소411호	12:30-	소412호
15. 장 년 2부	소414호	집회 및 분반공부		12:30-	소408호
16. 장 년 3부	소314호	집회 및 분반공부		12:30-	소312호
17. 장 년 4부	소307호	집회 및 분반공부		12:30-	소309호
18. 소 망 부	갈 린 리 홀	집회 및 분반공부		12:30-	본102호
19. 직 전 부	소514호	집회 및 분반공부	소508호(면)	10:30-12:20	소409호
20. 새 가 정 부	소201,202호	집회 및 분반공부		10:30-12:20	소201호
21. 새 가 족 부	베 다 니 홀	집회 및 분반공부			본111호
22. 사 랑 부	소107호	소107호		11:00-13:00	소105호
23. 예 바 다 부	소107호	소109호	소109호	09:00-12:20	소109호
24. 탁 아 부	베 들 레 험 홀			09:00-15:00	본113호
25. 영 어 주 교	갈 린 리 홀	선401, 402, 404, 405		10:30-12:00	본108호

평신도의료선교사출국

11월26일 파송예배를 드린 파키스탄 평신도 의료선교사 일행 16명은 12월12일 오전 11시 선교임지인 파키스탄으로 출국했다.

이들의 선교사역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학원전도위원회 총회 회장에 안병호집사 유임

학원전도회 총회가 지난10일 오후 3시 본당 602호실에서 개최되어 회장에 안병호집사를 유임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회장: 안병호 ▲부회장: 홍성주
▲서기: 최형렬 ▲부서기: 천기성
▲회계: 구재환 ▲부회계: 홍영주

전도회 개편총회 17일 4부예배 끝난 후

전도위원회 89년도 총회가 12월 17일(주일) 4부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1부예배는 전도위원회 부위

원장 강은원장로 사회로 진행, 윤종성 전도위원장의 기도, 이종운 위임목사의 설교가 있다.

전도위원회 신규임원이 소개되며, 전도위원회 규정설명이 있다.

제2부는 지회별 총회가 개최되는 데 결산보고, 신임원 선출 등의 순서가 있을 예정이다.

90년도 남여전도회 구분과 명칭은 다음과 같다.

남전도회
요 한(1960년이하~1951년, 39세 이하)

베드로(1950년~1941년, 40~49세)

바울(1940년생 이상, 50세 이상)

여전도회

마리아(1951년생 이하, 39세 이하)

루디아(1950년~1941년, 40~49세)

에스더(1940년~1931년, 50~59세)

한나(1930년생 이상, 60세 이상)

온풍기 1대 기증

교회는 지난 8일 오후3시 소석관 앞뜰에서 제○○사단내 상승교회에

온풍기 1대를 기증했다.

스테반회 총회

본교회 안수집사 모임인 스테반회는 총회를 오는 21일 오후6시 만나홀에서 개최한다.

바로잡음

☆지난 41호(89년 12월9일자) 제4면 「이옥녀권사 충현기도원에 전자오펜 기증」기사는 「권사회에서 기증」으로 바로 잡습니다.

카메라초점



▲ 종합점등식에서 기도하는 이종운위임목사



▲ 교회는 제○○사단내 상승교회에 온풍기 1대를 기증했다.

89년도 교구총회 성료

89년도 교구총회가 지난 8일(금) 오후7시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교구위원장 우기전장로 사회로 진행, 이세열목사의 기도, 이종운위임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이후 3/4분기 시상 및 89 종합시상이 있었고, 교구성장보고와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각 교구장 사회로 교구별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신년도 일꾼 인사소개와 지역모임 등이 있었다. 한편 교구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위원장에 우기전장로, 지도목사 이세열목사, 서기 박영식장로, 회계 김재명장로이다.

교구담당 일꾼현황 및 교구편성은 다음과 같다.

교 구	교구장	지 도 목 사	전도자	지역 수	구역 수
1	최무길	윤용규	장영자	8	74
2	김원선	김성운	김주아	4	63
3	노광현	김학진	구명신	8	79
4	오진국	최인근	임태주	6	72
5	김광남	김창수	정복인	5	42
6	강순용	김해규	김정순	6	47
7	이 훈	이세열	유순화	5	55
8	박철훈	김영구	김경성	5	53
9	박영식	송태근	정연희	7	75
10	이병학	김은태	김정자	6	55
11	문홍구	김동열	최명자	5	56
12	김재명	신표근	최순복	5	46
13	이창호	김광식	장해순	7	53
14	마성락	이조웅	현정남	6	46
계	14	14	14	83	816

89년이 저물어 간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슬픈 소용돌이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선교2세기의 거창한 비전을 갖고 출발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얼마만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묻고싶을 정도이다. 이런 차제에 우리 충현교회는 새성전 완공이후의 원년에 이루말 할 수 없는 교회행사와 사업들을 진행시켜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까지 선교비전과 말씀의 보수, 전도의 영역확장에 주력해 왔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온성도들에게는 일하는 기쁨과 봉사의 기쁨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났다. 이제 89년 한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회행사 중 하이라이트 부분만 발췌하여 게재해 본다.

(편집자주)

3월 첫주부터 예배순서 일부 변경

본교회는 3월 첫주부터 주일예배(1부~4부)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실시키로 했다.

위임목사와 예배위원회, 그리고 당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예배순서는 종래의 예배순서를 전체적으로 살리면서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입례송, 예배에의 부름, 화답송, 성서교독, 봉헌송을 삽입키로 된 것이다.

예배순서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헌금, 새가족 환영을 앞부분으로 올리고 설교를 뒷부분으로 함과 동시에 축도로 메시지 여운을 잊지않도록 배려한 점이 특색이다.

협동목사 8명 초빙

교회는 새로이 협동목사 8명을 초빙하고 3월 13일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충현교회 성장과 더불어 양적부흥에 대처할 질적양육을 위해 한국교계의 신학자이며 석학인 보수진영 신학대학의 학장들과 선교사등이 2년 계약으로 특별초빙되었다.

한국교회 성장연구원 개설

현대교회의 목회방향을 조명해 주고, 목회자의 목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한국교회성장연구원(원장이종윤목사)이 지난 2월 13일 개원되어 한국교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세계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교회답게 성장시키고, 사회와 민족앞에 책임있는 교회가 되기위해서는 목회자의 소명의식 고취, 영적충만, 그리고 지도력 개발이 시급함을 감안, 충현교회가 이 일을 감당케 된 것이다.

전국의 목회자가 수강대상인 제1회 목회자 세미나엔 960명이 등록했

'89년 교회행사 하이라이트

너무나 벅찬 한해였고 감사가 넘쳤다.

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2시부터 5시20분 까지 90분 강의 2교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3학기가 종강되었고 제4학기는 90년 2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충현영빈관 개관

세계 도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란 제하의 설교를 했다.

충현올림픽

5월12일 정신여고 교정에서 전교인 체육대회인 충현올림픽이 거행되었다.

공군군악대와 의장대가 함께 참여



▲한국교회갱신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한 목회자 세미나

선교사 및 그가족, 그리고 교회와 관계있는 외국인들의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교회당 선교관 5층에 충현영빈관을 마련했다.

3월 16일 개관예배를 드린 동영빈관에서는 복음사역의 국내외 선교사, 목회자, 그리고 본교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인사들이 이용대상자가 되며, 객실은 2인1실의 3개의 방으로 꾸며져 있다.

객실 내에는 냉난방시설을 비롯, 냉장고, T.V시설, 가스렌지 1인용침대 2개 응접실, 샤워실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1인1실은 하루 8천원, 2인1실은 하루 1만원씩의 시설사용료를 내야한다.

주일엔 설교태요 보급중지

교회는 4월 첫주부터 그동안 보급되어 왔던 설교태요 및 성경, 찬송가, 기타 설교집 등을 주일에는 일체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일성수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온 태요보급은 일종의 금전거래, 혹은 상행위의 우려가 있어 그동안 교회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이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에 항상 저해요소로 등장되다가 있었다.

미래세계의 지도자 전도대회

미래세계의 지도자 초청 전도대회가 4월9일 오후1시 분당에서 개최되었다.

2천5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석한 이날 전도대회의 1부 예배는 윤용규 목사(교육위원회 지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오태희장로(교육위원장)의 기도, 성경 눅 8:26-30, 38~39절 봉독후 이종윤 위임목사가 「인간의 조건」

한 충현올림픽은 14교구에서 4천여명의 선수와 응원단들이나와 충현의 한가족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시온성대행진

「오직말씀만, 오직믿음만, 오직은혜만」의 행동원리를 가지고 오직하나님께만 영광돌리기 위한 「시온성대행진」이 6월6일(화) 새벽5시 정각 시작되어 20일까지 15일간 분당에서 개최되었다.

위임 이종윤목사는 특별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임을 전제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은 교회갱신으로 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는 기쁨제가 될 수 있기를」 강조했다.

우리 충현교회만의 영적 각성운동



▲문선명 이단 사교집단 대학인가 취소를 위한 연합집회

을 탈피한 한국교회 전체의 교회갱신과 민족복음화 차원의 위기극복의 특별성회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교회설립 36주년 기념행사

교회설립 3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9월24일부터 진행되어 10월8일까지 모두 끝났다.

선교옹변대회는 9월24일 실시하여 최우상에 최낙은군(직장전도교육

부)이 차지했고 성경암송대회는 10월1일 실시하여 대상에 이미화양이 차지했다. 그리고 제1회 성극경연대회는 대상에 중등부 「스테반의 회개」가 상을 받았다.

안수집사·권사선출

지난 10월1일 공동의회에서 실시한 안수집사·권사 선출 투표에서 안수집사 20명, 권사 40명이 피택되었다.

충현복지마을·세계선교 훈련원 건립

교회는 지난 9월6일(수) 오후8시30분 배다니홀에서 임시당회를 열어 충현복지마을 설립 및 충현 세계선교원(충현 수양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충현 복지마을은 현재 사용중인 경기도 광주소재 「충현기도원」부지 위에 모든 편의 시설물을 보완 또는 증축하여 사용케 되는데, 이곳에서는 일평생 주님께 헌신 봉사하고 은퇴한 자녀 없는 여전도사를 위한 성로원과,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소외당한 절망 중에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소망의 보급자리로 마련되고, 또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수준의 특수학교를 설립 단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종윤위임목사는 지난해 헌당을 마치고 이제는 공헌하는 교회로서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던 중 새로운 가치관과 기독교 문화 창출을 내세워 우리교회 기도목표인 교육·선교·구제의 세 기둥 가운데

로 삼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추진 중에 각 나라에서 초청된 복음주의 교역자들의 영성훈련과 신학교육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센터로 손색이 없는 국내 유일의 수양관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통일교재단 대학설립 반대 서명운동 전개

교회는 10월24일(화) 오전 6시 긴급 임시당회를 열어 통일교 재단 대학설립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당회장 이종윤목사는 통일교 재단 대학인가를 반대하는 배경 설명이 있는 후 우리교회가 이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당회원 만장일치의 결의가 있는 후 당회 서기가 대책위원회 책임을 맡고 전교인 반대서명 운동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수립토록 일임했다.

이에따라 10월29일 1부부터 4부 예배시 전교인들이 반대서명을 했다.

전미령 평신도 선교사 파송

전미령 평신도 선교사의 임지변경 파송예배가 지난 10월15일(주일) 오후7시 분당에서 있었다.

전 선교사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로 파송되는데 그곳 지역학교의 양호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근처 주민들에게 선교하게 된다.

제2회 장애자돕기 바자회

10월20일, 21일 개최되었던 제2회 장애자돕기 자선바자회의 순수 이익금은 7천5백58만7천6백60원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계획된 수입예상은 7천만원이었는데, 이를 웃돌아 더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가 10월1일부터 실시되어 11월3일까지 약 35일간에 걸쳐 전진대회가 진행되었다.

많은 양 잡기와 태신자 전도운동을 채택한 복음화 전진대회는 전교인들이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파키스탄 평신도 의료 선교사 파송예배

교회는 파키스탄 평신도 의료선교사 파송예배를 11월26일(주일) 오후 7시 분당에서 가졌다.

의사2명, 간호사 4명, 병리기사 1명, 엑스레이기사 1명, 행정요원 1명과 의사가족 등 총 16명이 팀으로 하여 의료선교를 펼친다.

교구일꾼에 대한 직임설명

이세열(목사·교구위원회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구일꾼이 임명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유능한 교구일꾼으로 교구에서 봉사하게 될때 교구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것이며 나아가서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께 받은바 사명을 감당케 될것입니다.

교구일꾼은 세가지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구역심방과 전도입니다.

둘째는 구역예배와 친교며 구역의 영적 부흥입니다.

셋째는 구역보고서 제출과 행정업무인 것입니다.

1. 구역심방과 전도입니다.

구역심방과 구역전도의 일차적 책임은 구역장에게 있습니다. 구역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원의 가정을 심방하며 가정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기도하며 친교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구역내의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심방할 것입니다. 구역원의 가정이 불완전세대일 경우는 완전세대로 이끌기 위해서 각별히 전도하며 위하여 돌볼 것입니다. 또한 년 1회 이상 구역내의 불신자 가정을 위해서 축조전도를 실시하며 전도할 것입니다.

어떤 구역장은 책임에 충실치 못함으로 매주 심방치 않고 방치하므로 구역내 가정의 이사가도 모르고 행방불명세대로 보고하게 되고 교회에 출석치 않아도 무관심하므로 교회에 불출하여 제직하는 세대가 생기고 타교회에 가도 파악치못하고 영적저도에 등한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새 교우가 등록하였을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다하여 돌볼것이며 전도하는 이상으로 새교회를 사랑하고 양육할 것입니다. 새교우는 기성가정보다 교회출석도 잘못하고 심방의 관심도 없고 구역예배 모임도 잘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역장이 심방도 안하고 무관심한다면 새교우 양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새교우 양육은 구역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여 등록하는것 이상으로 구역장은 새교우 양육에 책임지고 심방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지도를 담당해야 될것입니다.

구역장이 1년후에 구역이 부흥하지 않았다면 구역장의 책임입니다. 구역의 세대를 돌보지 않고 구역내 전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어찌 구역이 부흥하고 영적인 신앙의 발전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구역의 부흥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쇠퇴할때 어찌 교회의 부흥을 바랄 수 있습니까.

구역심방을 위해서 구역의 권찰이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역장이 지도하며 협조할 것입니다. 어떤 부지역장은 구역장의 일을 너무나 간섭함으로 구역장이 업무에 태만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또한 구역장과 부지역장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부지역장은 구역장을 지도하고 도와서 구역장이 일을 잘하게 격려하고 구역부흥을 가져오게 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구역장이 되어서 말은바 책임에 충성하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2. 구역예배와 친교와 영적부흥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예배의 실질적 책임자입니다.

충현프리즘

●종탑에 성탄 네온싸인 점등

지난 8일(금) 오후 6시45분 본교회 종탑에 성탄을 알리는 네온싸인(작은불꽃) 점등식이 있었다.

이종윤위임목사를 비롯한 수백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점등식에서 성탄의 참된 뜻을 되새기며, 밤중에 종탑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소원했다. 충현교회 종탑의 네온싸인은 강남일대 어디에서도 바라볼 수 있으며, 멀리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에서도 맑은 날씨엔 깨끗하게 보인다.

교구위원회 총회

지난 금요일(8일) 오후 7시부터

다. 협력구역장이 예배를 인도할때 구역장이 구역원을 동원하고 협력해야 되며 교역자가 교구장과 지역장과 부지역장이 순회 구역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구역원을 동원하고 여러가지로 구역예배에 협력해야 되며 그뿐 아니라 구역단위로 구역예배를 드릴때에는 구역예배에 인도자가 되며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은 구역예배의 실질적인 책임자며 구역원의 친교와 영적 부흥에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되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교구모임과 구역공과 공부시에도 구역장은 참석하고 성경공부에 깊은 연구와 영적신앙의 지도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될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모임에 소홀히 한다면 구역예배의 인도자가 될 수 없으며 여러가지 행정문제에도 차질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의 모든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혹시나 부지역장이 대신하고 권찰이 대신하겠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무책임한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역의 부흥과 발전은 구역장에게 있습니다. 구역장이 말은바 책임에 충성할때 구역은 부흥하고 발전하며 나가서는 교회가 부흥하

1990년도 교사명단

(재)교육위원회

위원장 / 조선근 장로

서 기 / 차신득 장로

회 계 / 정광호 장로

1. 영아부

부 장 / 차신득

지 도 / 정연희

부 장 / 김구형, 김경희

조승철, 조상재, 이상희, 김용필, 김용배, 이호익, 이형일,

정영도, 김관홍, 이한재, 홍현영, 백영기, 윤 정, 서명숙,

최금실, 김병규, 오정남, 김영란, 김정희, 채현일, 고현숙,

손예숙, 장태숙, 오정애, 오경숙, 최 숙, 박명연, 정경옥,

황윤자, 송경자, 이명숙, 김윤실, 김영실, 손유미, 이순옥,

주복순, 김영실, 윤옥자, 김정희, 오화자, 여영수(49명)

2. 유치부

부 장 / 정광호

있었던. 89년도 교구위원회 총회는 각교구 교구장및 지도교역자, 지역상, 구역일꾼등 약 2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새롭게 교구장이 소개되는가 하면 지도교역자도 각교구별로 많이 바뀌어 신·구 인사하느라

교구일꾼들, 새해엔 충성스럽게 헌신할 것을다짐 당회산하 각 위원회 인수인계작업 진행중

박수가 여기저기서 요란했다.

지난한해(89년)에는 주님의 은총가운데 구역을 돌아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음을 감사하면서, 못다한 청지기 사역에 대한 회개와 자성의 시간도 가졌다.

이제 80년도를 영원한 과거로 밀쳐버리면서 90년도 원년인 새해에는 지난해에 못다한 교구활동을 좀더활기차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들이

여보인다.

게 되는 것입니다.

3. 구역보고서 제출과 행정문제입니다.

구역장은 구역보고서를 매주일 작성하여 주일마다 교구간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교구간사는 구역보고서를 받아서 교구의 구역예배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하며 충현지에 교회전체의 구역예배 현황을 정리하며 교회의 구역예배의 장려와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혹시 구역보고서를 내지 않는 구역장이 있을 것입니다. 구역보고서를 누가 대신 내어 주지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은 책임지고 구역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구역보고서를 내지 않는 구역은 사고 구역으로 여기고 새로운 구역장을 임명해야 될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행정에도 책임자입니다. 교회의 연락사항을 받아서 구역원에게 일일이 알리고 확인하고 시행되는가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될것입니다. 구역장이 교구모임시 참석하지 않으면 구역공과 공부에 빠지게 되고 구역의 행정적인 연락사항을 모르게 되고 매주 구역간사에게 둘러서 구역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구역에 보내지는 연락

지 도 / 김집자

부 장 / 김단용, 정영자

분원준 박용기, 홍성옥, 한석현, 윤창준, 이순옥, 강영애

여정옥, 김명화, 김정화, 박은경, 이애영, 김향신, 이진석,

정금자, 이순석, 홍순애, 김양자, 이명자, 상명현, 장금줄,

최성복, 김현주, 정금선, 안경옥, 송연진, 강희자, 김복자,

세혜자, 김선자, 유주옥, 김정희, 전설자, 박진희, 김득연,

김영이, 이종영, 조양옥, 임신연, 이미영, 이은하, 이홍자,

이순복, 이미리, 조옥자, 이금효, 윤선주, 김병희, 정정순,

김유선, 정은희, 지아연, 송영현, 조숙민, 강영옥, 김예순,

유혜련, 정두연, 김성문, 김은희, 이정옥, 이혜숙, 김순이

김숙희, 이윤자, 김경복 (89명)

3. 초등1부

부 장 / 김중구

지 도 / 한용관

부 장 / 박미련, 백영희

이상희, 신광철, 권명옥, 김승곤, 김영주, 이생적, 오혜원,

고재술, 박진주, 최계순, 하은진, 안철배, 김혜숙, 전길복,

김현주, 백영자, 김영배, 장명자, 임미자, 김경희, 김영희,

당회신학 각 위원회 인수인계

우리교회는 당회 산하에 여러위

원회가 있어 위임목사의 목회방침을 협력하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90년도를 맞이하면서 각 위원회의

당회신학 각 위원회 인수인계작업 진행중

위원장들이 교체되어 새롭게 임명 받은 위원장들이 구위원장들과의 인수인계 작업이 한창이다.

평일 오후7시에는 이런작업들이 각 위원회별로 모임을 갖고 업무및 행정에 대한 인수인계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좋은 행사와 사업들은 계속 지속되도록 하고, 교회발전에 저해요소가 있다든가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끊고, 새로운 기획으

로 2천년대를 향한 충현교회 이정

표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

교회 각종 업무에 적극적인 봉사를!

년말이 되면서 교회도 바빠졌다. 결산준비, 새해행정업무처리, 각위원회에서의 통상적인 일반행정들이 교회 유급직원으로서

는 일손이 딸리고 있다.

우리성도 가운데 행정능력이 있는분, 타자에 소질이 있는분, 통계자료에 자신이 있는분, 그렇지 않으면 무슨일이든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국에 연락하여 「돕는일

손」이 되면 무척 좋겠다.

한사람이 할 일을 두 세 사람이 협력하면 힘도 안들고 정한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도 함께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절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마비와

구역예배의 소홀과 구역장의 역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역은 교회의 일부분이요 지체인 것입니다. 조직체에 한부분이 마비 되었다면 불구가 됩니다. 교회의 지체인 구역이 마비될 때 교회는 중풍병 환자같은 마비된 조직체가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은 교회의 조직에 가장 중요한 신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의 업무태만은 교회의 업무태만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의 임무에 중요성을 깊이 연구하고 임무에 충성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와 같은 구역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역보고서는 내고 구역공과 공부에 참석하고 열심히 심방하며 전도하며 구역예배를 드리는 구역장이 되며 구역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구역장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구역이 부흥치 않고 구역의 행정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흥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유능한 구역장 구역을 부흥케 하는 구역장 새해에는 별과같이 빛나는 구역장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부흥케충성다하기를바라는 것입니다.

나기태, 유운옥, 윤옥자, 이정민, 이훈정, 김민자, 김복옥,

홍수정, 손경순, 박애희, 남영덕, 이면자, 김현실, 이은아,

장연수, 장원옥, 추정희(42명)

4. 초등2부

부 장 / 임필성

지 도 / 김경성

부 장 / 원용철, 김순희

김인권, 김병관, 이만수, 송병철, 오경복, 조영수, 이승옥,

윤종선, 진화자, 장화숙, 김정업, 신귀옥, 김정은, 이소규,

송은경, 마귀경, 조항순, 김순련, 윤정미, 정태은, 송정순,

안숙경, 양영희, 서광남, 한미자, 김광순, 김경애, 박옥자,

정형은, 임승준, 김영자, 이경숙, 이훈숙, 양옥자, 이윤진,

문경숙, 김영숙, 정명주, 홍현기, 이선애, 윤강선, 이미리,

이은우, 김성복(48명)

5. 초등3부

부 장 / 오정현

지 도 / 김연이

부 장 / 이갑재, 정옥남

<4면으로 계속>

이철호, 김철수, 오세일, 이인범, 함철주, 이인근, 박종규, 김영수, 김수길, 이세남, 김윤창, 김준택, 이정택, 김성태, 김규종, 오순도, 김재준, 이정철, 함윤자, 현병애, 이부용, 이금순, 이상금, 변경심, 홍영주, 홍황숙, 김분애, 장인희, 이미화, 박현순, 유인애, 장혜진, 정소원, 신혜진, 이천애, 이성자, 장인화, 김문정, 송성명, 이인숙, 명성희, 선우윤정, 정금영, 이흥선, 최윤영(49명)

6. 초등4부

부 장 / 하대선

지 도 / 장혜순

부 감 / 양종섭, 박종영

홍성철, 김승기, 김영갑, 김영민, 조영구, 박경열, 박준배, 고승균, 박동업, 조석재, 양용섭, 이철, 이승계, 박인수, 홍인수, 정유재, 한정희, 송두섭, 이정현, 정윤지, 한숙, 한복자, 서인경, 윤정희, 김미애, 차복희, 최윤정, 김미숙, 송복화, 이복희, 김연식, 이명숙, 조순남, 한명자, 이동희, 이인선, 김유순, 김순곤, 강윤재, 안금자, 박윤숙, 김말자, 최태옥, 이인선, 손희경, 이영숙, 정경애(51명)

7. 초등5부

부 장 / 최무길

지 도 / 신평근

부 감 / 박홍규, 김소실

최종시, 조종민, 이정립, 임희택, 양기수, 정원근, 김종율, 신태홍, 김영갑, 편부산, 정달영, 박태근, 정영래, 송준업, 권백용, 양병진, 신종명, 박태진, 박창식, 김준곤, 박양덕, 김미자, 이은희, 백광희, 허윤종, 최영순, 신정순, 김재순, 김숙옥, 유명숙, 김정자, 신영희, 강순자, 권병순, 서인성, 이수자, 황지은, 손경애, 문미영, 최윤영(42명)

8. 초등6부

부 장 / 손경수

지 도 / 김창수

부 감 / 이동명, 이영희

조용준, 전은배, 김홍기, 한덕주, 기종선, 이양철, 안승현, 윤장원, 김황진, 이종식, 이홍후, 조금복, 김기태, 김동욱, 서문석, 이요섭, 신성훈, 안광영, 송원석, 권영훈, 양한원, 김순희, 박영기, 조대영, 김복순, 설진희, 독고정란, 임선애, 최종분, 임양주, 강은미, 김은영, 장정화, 손순자, 김신애, 지인숙, 엄영자, 최수자, 이애나(44명)

9. 중등부

부 장 / 노문환

지 도 / 김은태

부 감 / 황영일, 남정애

신수남, 이태근, 김수연, 김인혁, 김시주, 강경의, 이인광, 김진화, 이삼연, 이승준, 임희준, 허찬우, 김철영, 이영환, 이명진, 김충곤, 이상복, 김필수, 엄광호, 이동성, 전명상, 오영희, 김창동, 김인원, 김한원, 백종, 김광호, 김창국, 장주식, 정한부, 이용현, 신용환, 박기범, 안희정, 이성남, 정재영, 손종원, 강태영, 이종훈, 최병렬, 이종원, 송진국, 안광식, 박달옥, 이상복, 박동준, 김대용, 정경희, 김현자, 김선자, 백애순, 구자남, 최은자, 한옥화, 김경미, 한수정, 박정아, 이영인, 조옥환, 장희수, 동지현, 이정애, 신옥순, 김성미, 양순옥, 손옥순, 마리아, 박현원, 김동선, 김복희, 구경자, 고정자, 성점요, 조옥희, 서미라, 유신행, 이인수, 조삼원, 이득해, 박무미, 신재은, 이승순, 이명주, 오정화, 한정선, 최의숙, 윤영원(91명)

10. 고등부

부 장 / 최성현

지 도 / 송대근

부 감 / 임무천, 김정자

정재모, 김승배, 김인철, 현준기, 신재성, 송재근, 왕경태, 김재윤, 이남성, 정연철, 한재용, 박종윤, 김희재, 박영선, 장철, 김성과, 한정수, 배준식, 박원영, 김남식, 최정식, 윤상언, 전계식, 엄복섭, 김성근, 박철구, 박종윤, 김동업, 김영달, 하영수, 한정현, 강철형, 박수현, 이광우, 유철식, 문윤수, 박승배, 이성섭, 장홍식, 성병희, 김용숙, 이명희, 이희표, 정정자, 조선희, 이숙형, 안현숙, 강혜영, 한혜경, 박준원, 천이순, 오순희, 박정순, 김명주, 강영자, 이영임, 김영숙, 이홍숙, 홍성주(60명)

11. 대학부

부 장 / 이훈

지 도 / 김해규

부 감 / 정홍식, 이인선

전승훈, 강남훈, 이준석, 유재선, 김준배, 안세현, 권태완, 안석현, 박석순, 유순원(15명)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차생 장로

·서기 / 김재명 장로

·회계 / 박영식 장로

1. 청년1부

부 장 / 강은원

지 도 / 이조용

부 감 / 황의만, 손명순

이상식, 김영은, 문영규, 조혜순, 최규(9명)

2. 청년2부

부 장 / 최대원

지 도 / 성주진

부 감 / 김현기, 박영업

장철환, 김종필, 정태두, 한정식, 강동화, 권도윤(9명)

3. 장년1부

부 장 / 최명환

지 도 /

부 감 / 김현선, 김석운

채수경, 박덕양, 박찬섭, 이상호, 백운홍, 김인수, 김광근, 윤해근, 한만수, 박상철, 주열호, 김창기, 권영하, 전은실, 김영희, 서양숙, 임경순, 석귀수, 송숙자, 민경애, 강순자, 권석애, 김희종, 한영자, 심정래, 윤병일, 박정애, 박천래, 채명해, 김명희, 아애자, 김경숙, 허해근, 김순오, 이복희, 박정순, 최현숙, 한금자, 최태옥, 김희숙(43명)

4. 장년2부

부 장 / 김은호

지 도 / 박형용

부 감 / 이하영, 무순성

강희창, 진학래, 이석영, 박정태, 문광석, 안성영, 한만교, 박호용, 황현철, 이태식, 김경식, 이영일, 안병호, 이순자, 유호순, 이경자, 서영남, 김영현, 장정훈, 정영남, 박영숙, 박은숙, 황종남, 최영득, 이은옥, 박준옥, 전명옥, 채혜선, 김숙희, 가원정, 임영숙, 신소자, 신수옥, 안준자, 김숙자, 안태숙(40명)

<다음호에 계속>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1989년 12월 22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51과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성경: 눅 2:8-14

요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찬송: 109, 114장

서론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신자에게는 말할 수 없이 기쁨을 주고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 성탄절이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은 점점, 사실은 그 빛을 잃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은 아이들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를 믿는자들에게 영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일입니다.

본론

오늘 우리가 눅2장에 나타난 천사들의 찬송속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므로 성탄절이 갖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눅 1:68-79에 보시면 전 줄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물을 베푸셨다. 우리를 돌아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으로 그 줄거리를 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77절에 보시면 공물, 자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로다'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속에는 우리가 그 사랑과 축복과 구원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즉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던 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고후 5:18-19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다같이).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화목케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랑이요 궁지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봉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내가 은혜를 입은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직책, 화목케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요 20:19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를 선언하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우리의 이웃에게 평강을 끼치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땅에 평강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지키는가? 신자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신자의 영광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못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를 십자가에 달아매사 피조물인 인간들의 손으로 피흘리게 하시며 모욕당하는 자리까지 자비와 공물속에,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며, 믿는 것이 신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 부모가 영광이 되듯이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결론

다가오는 이 성탄절에 우리모두는 다시한번 이웃을 향해 눈을 돌려 화목케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나누어 주며 돌보아주는 넓은 가슴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앞에 참된 평강을 전하는 향기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합시다.

1. 예수님 탄생의 가장 큰 의미?
2. 나는 이웃과 세상앞에 화목케하는 삶의 현장을 확보하고 있는지요?
3. 이웃을 향해 십자가 지는 마음에서 오는 평안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지요?

공동기도문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죄인들의 죄값으로 이땅에 나게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며 주님앞에 일생사는 동안 화목케 하는 삶을 살게하시어서 세상에 평강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구주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